

##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, 중동전쟁에 따른 중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

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(단장: 장도환)은 5월 7일(목) 군산에 위치한 특수 목적선 건조 전문 기업인 (주)삼원중공업을 방문하여, 최근 중동전쟁 및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선박 건조 현황과 석유화학 관련 주요 부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.

이번 방문은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해 선박 건조에 필요한 페인트, 각종 오일류, 선박 내장재 등 석유화학 관련 부품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

민생안정지원단은 (주)삼원중공업의 선박 건조 현장을 시찰한 후, (주)군장조선, PPG, (주)케이피 등 관계사 임직원 및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.

간담회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부품 수급의 어려움, 부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(인상) 및 납기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납부 부담 완화 등을 제기하였다.

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“중동전쟁으로 인해 중소 조선소와 선박 건조 부품 업계 현장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고,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”고 밝혔다.

재정경제부	민생안정지원단	책임자	팀 장 최은경 (044-215-2861)
		담당자	사무관 민현태 (ht798@korea.kr)